

■ 교회소식 ■

1. **설 명절** :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점식 식사와 오후 집회는 없습니다.
2. **떼제찬양과 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3. **모집** : 찬양대와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봉사하길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결혼** : 이종혁 씨와 박은애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월 4일 오후 5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고향 길 오갈 때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신 6:1-9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1부        | 김기석 목사 | 공동기도   | 인도자    |
| 2부        | 김기석 목사 | 김기석 목사 | 한성건 집사 |

|    | 1부 영접위원 | 곽권희     | 헌금위원    | 권미정     |
|----|---------|---------|---------|---------|
| 2월 | 2부 영접위원 | 김인걸 박범희 | 김광일 한양미 | 권미숙 박미영 |
|    | 2부 헌금위원 |         | 한완식 백혜숙 |         |

|               |                             |           |         |  |
|---------------|-----------------------------|-----------|---------|--|
| 오늘 식당 봉사 (없음) |                             |           |         |  |
| 다음주식당봉사       |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김재영 장재영 김정훈 | 곽상준       |         |  |
| 오늘설거지봉사 (없음)  |                             | 다음주설거지봉사  | 교회학교 교사 |  |
| 커피 판매 봉사 (없음) |                             | 다음 주 주차봉사 | 김희진     |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4주】

인도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이 사회의 분위기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정의와 진실,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냉랭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사연으로 고향을 갈 수 없는 이들과 실향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향이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얼굴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 5:8,9 ..... 인도자

▲ 교 독 문 ..... 4. 시편 5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대표기도 ..... 박홍재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5. 내 주 되신 주를 ..... 다 함께

▲ 성경봉독 ..... 레 23:23-25 ..... I. 인도자

II. 장병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예수님이 좋아좋아 ..... 찬양대

예수님이 좋아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     |     |     |     |     |     |     |     |     |     |
|-----|-----|-----|-----|-----|-----|-----|-----|-----|-----|
| 곽상준 | 최경미 | 김 린 | 김성우 | 박유경 | 김인숙 | 김종락 | 박영신 | 김종성 | 김중수 |
| 이순정 | 김철수 | 유영남 | 김태은 | 김현동 | 오유경 | 김형근 | 민지희 | 박규석 | 박경선 |
| 박명제 | 서미경 | 박상규 | 신연화 | 박재숙 | 서이순 | 서효진 | 안정숙 | 오미숙 | 오슬기 |
| 오자영 | 우경환 | 윤영미 | 이경남 | 이광섭 | 김수연 | 이국노 | 김민화 | 이완구 | 이영옥 |
| 장은주 | 이용석 | 이유선 | 이유진 | 이지영 | 이재삼 | 전정현 | 이재은 | 이주영 | 오재영 |
| 이치림 | 강상연 | 임광호 | 임승동 | 백혜숙 | 장원호 | 박성희 | 정연경 | 정재기 | 조지연 |
| 최다미 | 최미자 | 최 숙 | 최윤화 | 최철수 | 곽권희 | 최형균 | 강경화 | 하현일 | 김광우 |
| 한성건 | 정지혜 | 한인철 | 조윤숙 | 허신열 | 강금연 |     |     |     |     |

### 감사헌금

곽권희 손숙경 안성호 김희숙 양경해 오승아 이미휘 이상도 이소영 이은혜  
 이현정 박재영 임선양 신현숙 임혜진 최영민 최형민 무명9

### 생일감사헌금

권미숙 박시내 이왕준 송상경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현동 오유경 윤미경 윤수진 최광희 허진영 무명1

## ■ 집 회 안 내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일 집회                                   |
|----------|--|
| 쉽        |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br>저녁집회 / 폐제 찬양과 기도회 |

| 예배    | 시간    | 장소    | 예배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대예배실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성서학당  | 13:30 | 대예배실 |
| 중고등부  | 10:4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1:0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씨앗

씨앗 하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포동포동 부끄럽다  
 씨앗 하나의 단호함  
 씨앗 한톨의 폭발성  
 씨앗은 작지만/ 씨앗의 씨앗인 희망은 커  
 아직 뜨거운 내 손바닥도/ 껍질로 받아주는  
 씨앗은 우주를 이해한/ 마음 한점  
 마음껏 키운 살/ 버려  
 우주가 다 살이 되는구나  
 저처럼  
 나의 씨앗이 죽음임 깨달으면/ 죽지 않겠구나  
 우주의 중심에도 설수 있겠구나  
 씨앗을 먹고 살면서도/ 씨앗을 보지 못했었구나  
 씨앗 너는 마침표가 아니라/ 모든 문의 문이었구나

- 함민복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영생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사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에이아데이야 좋으시고 예수와 함께 살고지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 최고야

- 말씀 ..... 새날을 맞이한다는 것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찬양 ..... 459. 누가 주를 따라 ..... 다 함께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 봉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털어내야 할 것을 털어내고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바탕을 올바르게 하고 새날을 맞이하십시오.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 다함께: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바로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함과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 축복 ..... 김기석 목사

## ■ 믿음으로 읽는 글 ■

### 토니오와 안토닌의 식사

토니오는 내 가장 오랜 친구 중 하나다. 우리는 거의 반세기 동안 서로 알고 지냈다. 지난 해 함께 건초를 옮긴 어느 더운 날, 목이 말라 음료수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에게서 들은 얘기가.

… 토니오는 마드리드 북쪽 엘 레켄코 계곡에서 안토닌을 처음 만났다. 안토닌은 거기서 소를 치고 있었다. 전에 그 둘은 전혀 몰랐던 사이였다. …

오두막을 지은 뒤로 토니오는 이 엘 레켄코 계곡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깨져 나간 바위, 너도밤나무, 드문드문 보이는 잔디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 여울 등을 화폭에 담았다. …

엘 레켄코에서 소를 치려면 반드시 소몰이꾼이 필요했다. 작은 키에 땅딸막한 체격의 안토닌이 낡은 트럭 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고 있었다. 지천으로 널린 염소 똥을 한없이 밟고 지나갔을 타이어였을 것이다. 글을 전혀 읽을 줄 몰랐던 안토닌은 말하는 방식 또한 제멋대로였다. 그가 ‘엄청난 물’이라고 말하면 그건 폭풍우 때 내리는 억수 같은 비를 의미했다.

… 하루는 토니오가 감자와 베이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토닌이 우연히 들렀다. 토니오는 그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초대할 것이다. 어젯밤에 오소리를 봤다고 얘기를 건네는 것만큼이나 가벼운 초대였다. 안토닌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 초대에 응했다. 토니오는 데리고 다니는 개 두 마리는 밖에 놔두고 들어오라고 안토닌에게 손짓했다.

안토닌이 그 집에 있는 유일한 방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곳은 안토닌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 방안은 한 사람에게서는 눈을 감고도 익숙한 분위기였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색다른 세계였다. 토니오는 테이블에 접시를 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놓았으며 그 옆에는 잔을, 또 그 옆에는 포도주병을 놓았다. 그리고 빵도 내왔다. 안토닌은 이런 것에 전혀 익숙지 못했다. 어색한 듯 의자에 뒤로 기대어, 동물 우리와 개울, 또 토니오에겐 낯선 이름들에 관해 가끔 한마디씩 떠들떠들 말했다. 하지만 마치 이발소에서 머리

를 깎는 사람처럼 대체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다.

토니오가 토마토를 쪼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밖에는 안토닌의 개 두 마리가 바위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마침내 토니오도 자리를 잡고 앉았고 안토닌은 두 사람의 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이것만 빼면 다른 모든 접대는 주인인 토니오가 한 셈이다.

맛있는 식사였다. 식사 도중 때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음식을 다 먹고 이번에는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의 더위는 잔인할 정도였다. 식사가 다 끝났다. 이윽고 안토닌이 자신의 모자를 챙겨 썼다. 꼬박 십 분간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머뭇거리던 그가 천 페세타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런!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러지 말아요. 즐겁게 한 초대에 이러면 안 돼요. 토니오가 소리를 질렀다.

평생 이런 식사는 처음이었소.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었소. 엄숙히 선언하듯 안토닌이 말했다.

집어넣어요. 내 기쁜 마음에 침을 뱉는 격이요. 토니오가 또 고함을 질렀다.

이런 제기랄… 안토닌은 입 속으로 말을 삼켰다.

토니오가 손을 저으며 안토닌 쪽으로 돈을 밀었고 안토닌은 마지못해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곤 모자를 벗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섰다. 두 팔을 땅딸막한 몸에서 약간 떼어 벌리고, 왼쪽 손가락에 불 안 붙인 담배를 끼운 채 오른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선 그의 볼에, 눈물이 타고 내렸다.

안토닌을 마주 보고 선 토니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개들이 물끄러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인은 등을 돌리고 서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치 소금 병을 찾아 주기라도 하려는 듯 엉거주춤 서 있었다.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가만히 선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곤 서로를 껴안았다.